



‘2023년 강화 봄 콘서트’, 공감과 소통의 장

5천여 명의 관객들, 열정과 에너지로 행사장을 가득 채워



2023년 강화 봄 콘서트

마쳤다. 특히 올해는 강화군민의 사연을 영상편지로 소개하고, 공연 당일 사연 인터뷰를 통해 관객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강화의 밤하늘을 수놓을 환상의 불꽃놀이와 레이저쇼가 장식해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행사는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해 8시까지 나태주를 비롯해 서문탁, 김다나, 정동하, 해은이, 소향 등 인기가수가 대거 출연해 다양한 음악 장르로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펼쳤다.

또한 댄스 경연 프로그램 출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댄스팀 프라우드먼의 공연으로 열기를 더했다.

유천호 군수는 “바쁜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답답했던 마음을 날려버리고 활력을 얻는 즐거운 시간이 됐으리라 기대한다”라며, “강화군은 연말까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문화 예술 행사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전했다. ▣

- 최벽하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2일 강화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2023년 강화 봄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봄철 대형 콘서트로 관객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성황리에

강화군, 2023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A등급'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8기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강화군은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등 4대 분야 35개 세부지표에 대한 1,2차 평가와 철저한 자료 검증을 통해 A(우수)등급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실천계획서 내용과 수립 과정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민선 8기 공약사항 사전 검토 및 구체화 과정을 통하여 군정목표인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를 실현할 5개 목표 114개 세부사업으로 공약사항을 확정해 추진 중이다.

민선 8기 강화군수 공약은 주요 사업으로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강화 기점부 우선 연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전국 최고 수준 지원 ▲출산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추진 ▲한강물 농업용수 항구적 수원 확보 ▲외포지구 함상공원 건설 등이 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과 함께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민선8기 군정 철학과 군민의 목소리를 담은 114개의 공약 실천과제를 7백여 공직자와 함께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

“강화 DMZ 평화의 길”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DMZ 접경지역의 매력, 전 세계 홍보를 위한 기획



DMZ 외신기자 프레스투어(교동 실향민 인터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초청한 외신기자와 함께 강화 평화전망대 등 DMZ(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중심으로 프레스투어를 진행했다.

프레스투어는 오는 5월 4일부터 시작되는 “강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에 맞춰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DMZ 접경지역으로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코스로 6.25참전용사기념공원을 시작으로 일반인 미개방 지역인 의두돈대(의두분초)에서 불장돈대로 이어지는 철책길을 도보로 돌아 본 후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7개국 10명의 외신기자와 함께 조용만



DMZ 외신기자 프레스투어(문체부 조용만차관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 해 DMZ 평화의 길 개방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DMZ 관광자원화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투어에서는 6.25 전쟁 당시 연백군에서 피난을 내려온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교동도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실향민 어르신과 교동 원주민 어르신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뷰가 진행되어 외신기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외신기자 프레스투어를 통해 DMZ 접경 지역으로서 강화군과 교동도, 그리고 『강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매력이 전 세계로 알려져 강화도가 평화를 향한 희망의 현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화군, KBS 전국노래자랑, 8년 만에 녹화 성료

KBS-1TV 6월 25일 오후 12시 10분 방송 예정



전국노래자랑 '강화군편'



전국노래자랑 '강화군편'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5일 강화공설운동장에서 KBS 1TV의 '전국노래자랑 인천광역시 강화군 편'의 공개 녹화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이 강화군에서 열린 건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MC 김신영의 재치 있는 입담과 함께 초대가수 김국환과 박상철, 김양, 류지광, 강소리 등이 참여해 흥겨운 무대를 장식했고, 3천여명의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답했다.

지난 23일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1, 2차 예선에 참가한 271명 중, 최종 선발된 15팀이 출연해 노래 경연을 펼쳤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으로 구성된 15팀은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만큼 실력은 물론 넘치는 끼와 열정을 마음껏 뽐냈다. 각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신나는 댄스로 흥을 돋고 물구나무 서기, 옆구르기 등 다양한 장기를 뽐내며 관객들과 즐거움을 나눴다.

유천호 군수는 "8년 만에 개최된 전국노래자랑에 우리 지역의 재주꾼들이 참여해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도 문화로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더불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노래자랑 인천광역시 강화군 편은 6월 25일 오후 12시 10분에 KBS-1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

「2023. '봄'강화 와글와글」 행사, 6천여 명의 인파, 지역 상권과 연계 성료



'봄' 강화 와글와글 행사장



'봄' 강화 와글와글 행사(중앙시장)

강화읍 소창 체험관 일원에서 진행된 「2023. '봄' 강화 와글와글」 행사에 6천여 명 관광객들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쳤다.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봄맞이 행사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강화읍 신문리 원도심 일원에서 열렸다. 주요 행사는 와글와글 가요제, 보물찾기 투어, 버스킹 공연, 매직쇼 등을 진행했으며,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룰렛 이벤트, 영수증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즐거움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강화 원도심만의 '지역다움'을 토대로 한 고유의 문화자원인 소창체험관, 동광직물, 구세의원, 조양방직, 조양방직을 연계한 체험형

행사로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방문객의 흥미를 끌었다.

「2023. '봄' 강화 와글와글」행사는 '와글와글 트레킹' 걷기 행사와 함께 2023. '가을' 와글와글 행사로 10월 다시 찾아올 예정이다.

유천호 군수는 "첫 회를 맞는 이번 와글와글 원도심 행사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나가는 행사의 발판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화군의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최



제286회 임시회



제286회 임시회

강화군의의회(의장 박승한)는 24일 제28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8일까지 5일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현지의정활동」을 비롯하여「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8기 강화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과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 실시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6일과 27일에는 강화군 주요 현안사업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 대상은 화개산 전망대 등 7개소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마니산 산불 진화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한편으로 “강화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시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강화군, 재난발생 우려 노후·고위험 시설 점검



노후·고위험 시설 집중 점검(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6월 16일까지(61일간) 재난 발생 우려 건축물과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재해·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고위험시설 총 18개 소로 △건축시설 4개소 △생활·여가 6개소 △환경·에너지 1개소 △보건 복지·식품 7개소이다. 군은 민간 전문 인력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해 구조적 안정성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재난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문화재, 휴양림, 박물관,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관광숙박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안전점검 확산을 위한 자율안전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가정용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안전한 강화군을 위해 내실 있는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210명, 체납액 17억 원

고액·상습 체납자 ‘부동산 공매 처분’ 전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부동산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 간 체납기간 1년 이상,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고액 체납자 210명(17억 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사전 발송했고, 66명의 체납자가 1억8천여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14명에 대하여는 실익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 대행 을 의뢰하여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를 통한 강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조속한 납부를 통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공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 23년 교육경비 보조금 25억 지원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25억 원을 관내 초·중·고등학교(34개교) 및 유치원(4개원)에 지원한다.

교육경비는 전액 군비로 지원되며, 학교별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분야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초·중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8억 4천 3

백만 원 ▲각종 창의체험 활동 지원에 2억 5천 4백만 원 ▲명문우수고 교 육성에 2억 8천 1백만 원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학교 및 행복 배움학교 지정 고등학교 지원에 1억 9천만 원 ▲강화섬 외국어교실 거점학교 2개교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강화군은 교육경비 보조금 25억 원 이외에도 ▲초등 등·하교 안심 알림 서비스 지원에 1억 1천 8백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3천 6백만 원 ▲무상급식 지원에 12억 4천 2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하기 좋은 강화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특성상 다양한 교육 접근성 부족 및 도·농간 교육 여건 해소를 위해 유아 대상 영어 방과 활동에 1억 5천만 원을 새로이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지원 가능한 대학에 대한 사전 입시 정보 제공을 위한 입시컨설팅 지원 및 비진학 학생들의 직업과 진로를 선택을 위한 맞춤형 사업 지원, 인터넷 온라인 수강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을 이끌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5월 4일까지 신청, 본인 납부액 지원 23년도 상반기 대학생 등록금 최대 100만원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3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학기별 최대 100만 원까지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질 본인 납부액에 대하여 가구 소득에 따른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소득 분위 1~8구간의 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기준 강화군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 된 2023년 1월 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이며, 군 자치교육과에 방문하거나 전자메일(ghedu@kor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 ‘2023년 상반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공고’를 확인하거나, 자치교육과(☎032-930-3329)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강화군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분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 2곳에 대학생 공공기숙사인 강화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 연수구에 제3,4장학관을 추가 조성 중에 있다. ▣ - 최벽하 기자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기간: 4.17.(월)~5.4.(목)

-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한 강화군 출신 대학생 (소득분위 1~8구간)
* 다자녀 가정은 소득분위 미적용
- 지원내용**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학기별 최대 100만원
- 가정기준**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인 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자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
- 신청기준** 적정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지원금액** 학기별 최대 100만원/년 최대 200만원 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법정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70%
- 다자녀가정 대학생: 첫째(50%), 둘째(70%), 셋째 이상(100%)
- 일반가정 대학생: 소득분위 1~5구간(50%), 소득분위 6~8구간(4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 이메일: ghedu@korea.kr
- 국비지원** 강화군청 홈페이지 사업공고문 참조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930-3329

강화 순무, 제초제 직권등록시험 진행



순무 제초제 직권등록시험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팀에서 강화군 대표 작물인 순무 재배현황과 제초제 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수차례 제의했고, 마침내 2023년 소 면적 직권등록시험 목록에 순무 제초제가 포함되었다.

강화군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에 대비해 지난 2018년부터 순무, 도라지, 약쑥에 대한 농약 수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순무는 2022년 기준 강화군 내 농가수가 5,000호를 차지해 쌀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다. 강화 순무 품종인 ‘GH만청’,

‘GH만청1호’, ‘GH만청2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품종 보호등록 및 보호출원을 마쳤다.

하지만 순무는 전국적으로는 소 면적 재배 작물에 속해 등록 약제가 적은 편이며 제초제는 단 하나의 약제도 등록되지 않아 순무에는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팀에서 직권등록시험 목록에 순무 제초제를 포함시켜 오는 6월에 마무리하여 12월 말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뒤 2024년도 봄에 약제가 등록될 예정이다.

순무 제초제 직권등록 약효·약해시험은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진행되며, 4월부터 6월까지 강화군을 포함한 전국 4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GH만청’ 품종을 이용하며, 강화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순무 시험포에서 진행한다.

제초제 약효·약해시험 약제는 총 5종으로 2023년 4월 6일 순무 파종 후에 약제를 난괴법 3반복으로 처리해 진행한다. 약효는 30~60일경 잔초량을 조사하며, 약해는 10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육안으로 관찰한다.

시험 기관 관계자는 “총 5가지 약제 중 순무 일년생 잡초에 대해 우수한 방제효과와 순무에 약해가 없는 약제를 최종 선발한다.”며 “최소 3가지 약제가 선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약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던 순무 제초제의 직권등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강화순무를 재배하는 많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화군, 해충과의 전쟁 선포

4만 3천여 개 해충 기피제 지원 계획 /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및 방제차 운영



해충기피 자동분사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충 기피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증가한 모기, 진드기 등의 해충으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피제 사용이다. 이에 군 보건소는 등산로 및 나들길 등 주요 지점 18곳에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했으며, 오는 5월 초에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약 4만 3천여 개의 해충 기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위생해충에 취약한 주민을 위해서는 성충·유충 방제약품을 지원하고 매년 휴대용 방역장비도 일정 기간 대여한다. 아울러 지역별 민간위탁 방역을 비롯해 전담 방제차를 운영하는 등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해충기피제 사용 효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충 매개 감염병은 말라리아, 일본뇌염, 쯤쯤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대표적이다. 특히 말라리아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은 아직까지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야외활동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달라”며, “말라리아 의심 증상(발열, 오한 등) 발생 시에는 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체육회, 강화군 체육의 새로운 도약 기대 성공 기업가 출신, 제4대 박영광 회장 취임



강화군체육회장 취임식



강화군체육회장 취임식

강화군 체육회(회장 박영광)는 지난 28일 명진컨벤션웨딩부페에서 제4대 강화군 체육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천호 강화군수와 박승한 강화군 의회 의장, 박용철 인천광역시 의원을 비롯해 권영택 전임 체육회장과 체육회 이사 등 체육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광 신임 회장은 그동안 기업가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강화군 테니스협회장을 거쳐 강화군 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수십 년간 강화군 생활체육 발전에 힘써왔으며, 앞으로 4년간 강화군 체육회를 이끌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격려사에서 “박영광 회장님의 축적된 경험과 리더십을

통해 강화군 체육이 새로이 도약할 것이라 믿는다”라며 “민선 2기 강화군 체육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광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유천호 군수님을 포함한 전임 회장님들께서 생활체육 전반에 걸쳐 역할과 위상이 강화된 체육회로 이끌어 오셨다”면서, “이를 이어받아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강화군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유)성우이앤씨 김기원 대표 및 보경이앤씨 (주) 임채남 대표가 참석해 강화군 체육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금을 체육회에 전달하였다. ▣

강화군장애인복지관,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사진제공 강화군장애인복지관)

강화군장애인복지관이 지난 17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날’은 1981년부터 매년 4월 20일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이날 행사는 유천호 강화군수를 포함하여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색소폰과 드럼 연주를 시작으로 1부 행사를 진행했고, 2부에는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발생예방교육, 기타연주, 수어공연, 라인댄스, 클라리넷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여 이용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마지막 3부 행사에는 체험활동 참여부스를 운영하여 장애인 및 가족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붕어빵 만들기, 보드게임, 페이스페인팅, 네일 스티커, 민속놀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강화군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강화군 중식당 ‘금문도’에서 200인분의 짜장면과 탕수육을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한 참여자는 “코로나19 이후에 오랜만에 진행된 행사라 너무 신나고 감격스러웠다.”라며, “앞으로 강화군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복지관을 찾아오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봄날의 아름다운 봄꽃처럼 활력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 새마을회, 나눔도 실천하고, 상도 받고

강화군 새마을회, 성금 540만 원 기탁



새마을강화군지회 이웃사랑 기탁식

강화군 새마을회(회장 조인술)는 지난 20일 성금 540만원을 군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탁했다. 성금은 읍·면 남녀 새마을 지도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인술 회장은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앞장서며 모범이 되는 새마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천호 군수는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새마을회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고추장 담그기, 연탄나누기, 추석송편 담그기 등 관내 이웃사랑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이**

- 권주형 기자

강화군 새마을회, '인천 최우수지회상' 수상



강화군 새마을회 인천시 최우수지회상 수상



강화군 새마을회 인천시 최우수지회상 수상



강화군 새마을회 인천시 최우수지회상 수상



강화군 새마을회 회원

강화군 새마을회(회장 조인술)는 지난 21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2022년 인천시 최우수지회상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새마을지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지회를 대상으로 기념장 수여 및 평가 우수지회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강화군 새마을회는 종합평가에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탄소중립 실천운동과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운영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22일 ‘새마을 가꾸기 운동’ 제창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바 있다.

조인술 회장은 “지난 1년간 새마을운동에 적극 동참해 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유천호 군수는 “수상을 축하드리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갖고 봉사 해주시는 강화군 새마을회 회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 최백하 기자

강화읍 이장단, 깨끗한 동네 만들기 솔선



강화읍 이장단 환경정비

강화군 강화읍 이장단(단장 김상배)이 지난 21일 마을 환경정비 활동을 펼쳐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장단 29명이 참여해 옥리리 남오천 일원의 방치된 쓰레기와 불법 광고물 약 2톤을 집중 수거했다.

김상배 단장은 “작은 힘이라도 마을을 깨끗이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강화읍의 자연 경관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우종 강화읍장은 “농사일로 바쁘신 와중에도 환경개선을 위해 참여해 주신 이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환경 정화로 더욱 발전된 강화읍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내가면, 못자리 현장 방문해 농민 격려



내가면 영농현장 방문

강화군 내가면(면장 한관희)이 지난 17일 벼씨 파종 및 못자리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고천5리 황건식 씨는 “일손이 부족했는데 장병들이 일손을 보태주어 한결 수월하게 한해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한관희 면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농민들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불은면, 어린이날 행복 배달 사업 호응



불은면 어린이날 행복 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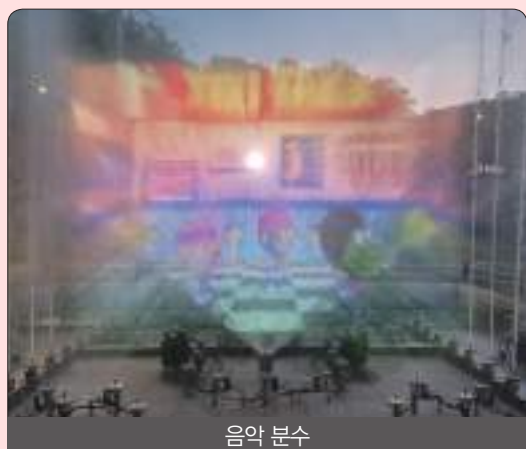
강화군 불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용수 면장, 민간위원장 유섭섭)는 지난 28일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7가구의 아동 19명에게 문화상품권(570천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는 올해 불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인 ‘어린이날 행복(상품권)배달’로 어린이날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섭섭 민간위원장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훌륭하고 건강한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면서 “어린이가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불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꾸준한 활동으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왔으며,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통해 다양한 복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화군, 힘찬 분수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음악 분수



음악 분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5월부터 남산공원 음악 분수, 갑룡공원 석가산, 신문리 쉼터 등으로 군민들이 물과 함께 마음의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공원의 수경시설을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군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하게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공원 내 수경시설을 찾는 군민들에게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몸어르신 생신축하사업 추진



하점면 홀몸어르신 생신축하

강화군 하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명희)에서 지난 24일 생신을 맞은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축하해 드렸다.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홀몸어르신 생신 축하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며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다.

이번에 생신을 맞은 어르신은 “직접 찾아와 축하해 주시니 고맙고 감격스럽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이명희 위원장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 드릴 수 있어서 보람 있다. 앞으로도 어르신 나들이, 거동불편 대상자 안전손잡이·보행기 지원, 한 부모·조손가정 간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 최벽하 기자

강화군노인복지관, ‘신바람·흥바람 나들이’ 진행



강화군노인복지관, '신바람·흥바람 나들이'

강화군노인복지관은 2023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상반기 ‘신바람·흥바람 나들이’를 지난 24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들이는 내 고장 강화를 사랑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사회 발전 및 경제활동에 이바지 하고자 화개정원, 평화전망대, 강화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관람을 계획했다.

나들이에 참석한 어르신은 “코로나 장기화로 나들이를 갈 기회가 없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및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 좋았다”고 하였고, “강화 내에서도 풍성한 볼거리를 비롯한 즐거운 나들이가 될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활동지원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하였으며, “가을에도 2차로 나들이를 계획하여 상반기에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새 봄맞이 이불빨래 봉사’ 실시

“어르신 안녕하세요! 깨끗하게 세탁된 보송한 이불 배달 왔습니다.”



이불세탁봉사

강화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동수)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1일 까지 독거노인 등 관내 소외계층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불 세탁 봉사의 날’을 실시했다.

이불 세탁 봉사는 자원봉사자들이 수혜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이불과 담요 등을 수거해 당일세탁 건조 후 전달하는 윈스톱 방식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수혜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겨우내 묵은 이불 빨래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세탁해 주니 너무 고맙다”며 두 손을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찾아가는 이불 세탁 봉사의 날’은 거동이 불편해 이불 세탁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 3~4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센터 내 세탁방이 설치되어 시범적으로 상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수 센터장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이불 빨래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깨끗해진이불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 최벽하 기자

강화교육지원청, 공동 수업으로 작은 학교를 잇다!



강화교육지원청 강화이음교육과정

(279명)가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강화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중 80%가 참여하는 수치이다. 강화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강화의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평소 섭외하기 어려운 예술 강사와 학생들의 탐구 체험학습을 위한 차량을 지원하여 학교 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강화 이음교육과정’은 ‘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주제로 운영된다.

강화 이음교육과정에 참여한 한 교사는 “강화가 작은 학교다 보니, 동학년 교사가 없어서 수업 준비나 교과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타학교의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고민하고 이렇게 관내 3학년 아이들이 모두 모여 음악회 공연까지 들으니, 너무 꿈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은 강화의 특성을 살린 교육 활동을 통해 교실 수업을 지원하고, 특히 작은 학교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업력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은 강화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강화 교육의 맥(脈)을 잇고 교육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강화 이음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화 이음교육과정’은 학교 간 경계를 넘어 관내 동학년 협의체를 통해 공동 수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관내 11개교

강화군보건소 · 노인복지관 업무 협약 체결



강화군보건소-노인복지관 업무협약식

강화군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이 건강한 100세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1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보건소에서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 및 금연, 절주, 구강보건, 재활 사업 등 다양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갈 예정이다.

군 보건소장을 비롯해 건강증진과장, 노인복지관장 및 부장, 대한노인회 강화군법인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건강한 100세를 만들기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 협력키로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강화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홀몸 어르신 지킴이 ‘단군콜센터’ 만족도 조사



강화군 단군콜센터(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 단군콜센터는 만 65세 이상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홀몸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살피고 생활불편사항 해소, 군정 및 복지 혜택 등을 안내해 드리는 홀몸 어르신 케어콜 서비스다.

강화군이 본격 운영 4년째를 맞이한 ‘강화군 단군콜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한 달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케어

콜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에 매우 그렇다(54%), 그렇다(22%), 무응답(24%)로 응답자의 7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통화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부 확인(41%), 말벗(12%), 복지 서비스 안내(8%), 불편사항 해소(1%) 순이었으며 복수응답(14%)으로는 안부확인, 말벗, 복지 서비스 응답이 많았다.

안부전화를 계속 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가 계속 전화 받기를 희망했고,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통화 내용에 대하여도 만족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전화받기를 희망했다.

군에서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욕구에 따른 케어콜로 조정하고, 서비스를 원하는 자에게는 더욱 충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천호 군수는 “홀몸어르신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서 안부 확인, 말벗, 복지 서비스 안내 확대를 통한 만족도 향상은 물론 고독사 예방 등 지역 사회 어르신 돌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기고

이경수

오늘은 연미정 가는 날



연미정에서 본 북녘

간 겨울, 영하 20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봄은 와 진달래, 개나리, 목련, 벚꽃, 영산홍, 강화가 꽃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록입니다. 요맘때의 파릇한 저 신록, 참 좋아요. 모처럼 방구석을 벗어나 연미정으로 갑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렸습니다. 아래서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강화산성 남문 뒤편 조해루(朝海樓)를 먼저 만납니다. 조해루는 강화외성의 성문입니다. 조선 후기, 강화 동쪽 해안에 외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으면 드나드는 성문이 필요하죠. 조해루가 바로 외성 성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덕진진 공조루, 광성보 안해루 역시 강화외성 출입문입니다. 조해루에서 저 위 월곶돈대까지 성벽이 이어져 있지요? 그 성벽이 바로 강화외성의 일부입니다.

이제 경사 길 따라 연미정으로 향합니다.

정갈한 잔디밭 한가운데 검은색 빗돌이 섰습니다. 뭐라고 새겼나, 가서 보지요. “莊武公黃衡將軍宅地碑”(장무공황형장군택지비)라고 쓰여 있네요. 황형(1459~1520)의 집이 있던 터라고 합니다. 연미정에서 대월초등학교 사이에 황형의 묘소도 있습니다.

장무(莊武)는 황형(1459~1520)의 시호입니다. 시호 뒤에 ‘공’을 붙여 장무공으로 부릅니다. 시호는 업적이 두드러진 신하나 학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라에서 내리는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시호가 충무(忠武)라서 충무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충무공, 그러면 무조건 이순신을 떠올리지만, 충무라는 시호를 받은 이들이 더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만 따져도 9명이라고 해요. 김시민, 남이, 정충신 등의 시호도 충무입니다. 그들도 충무공인 것입니다.

황형은 당대 조선을 대표하는 명장(名將)입니다. 왜인들이 남녘에서 일으킨 삼포왜란(1510)을 진압했고 북으로 달려가 여진족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은퇴하고는 고향 강화로 내려와 소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하곡 정제두부터 이어지는 강화학(조선 양명학)의 맥을 이은 원교 이광사, 그 이광사의 아들이 이공익(1736~1806)입니다. 이공익의 호가 ‘연려실’이고 그가 쓴 역사책이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입니다. 《연려실기술》에 나오는 황형 장군의 이야기를 옮깁니다.

공의 시골집이 강화도 연미정에 있었는데, 일찍이 소나무 수천 그루를 심었다. 사람들이 묻기를, “공은 이미 늙었는데 무엇 하러 그렇게 많이 심으시오.” 하니, 공은, “후세에 당연히 알 것이다.” 하였다. 선조 임진년에 김천일·최원이 들어와서 강도를 보전하는데, 무릇 배와 기계를 이 나무로 만들어 쓰기도 남았다. … 사람들이 비로소 공의 식견에 탄복하였다.

황형은 삼포왜란을 진압한 뒤, 대마도 정벌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실행되지는 않았습니. 황형은 왜인들의 침략 근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침략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서양인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다지요. 정말 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황형은 말없이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월곶돈대, 외성, 조해루



유도

황형이 세상을 떠나고 70여 년 뒤, 소나무가 실하게 자라 있을 때, 임진왜란(1592)이 터지고 맙니다. 그때 강화에 들어와 있던 의병장 김천일 등이 황형이 심은 소나무로 배를 만들어 왜군에 대항했다고 합니다.

자, 황형장군택지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그냥 빈터죠? 조선 후기에는 그 빈터 잔디밭에 진사(鎭舍)라고 부르는 군부대 건물이 여럿 있었습니다. 웬 군부대 건물? 예, 바로 월곶진이라는 부대가 있던 자리랍니다. 당시 해안경계부대인 진과 보 12개가 강화에 설치됐습니다. 보통 5진·7보라고 하지요.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지휘관이 통솔하던 곳이 월곶진입니다.

각 진·보마다 서너 개의 돈대가 딸려 있었습니다. 진과 보가 군부대라면 돈대는 군부대에 속한 일종의 초소였습니다. 월곶진에 속한 돈대는 적북돈대, 휴암돈대, 월곶돈대, 옥창돈대(옥포돈대)입니다. 진사와 한 공간에 있던 월곶돈대가 가장 중요한 돈대였지요. 그 월곶돈대 안에 연미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겁니다. ‘진·보·돈대’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강화투데이>에 실을 예정입니다.

월곶돈대 출입문 앞입니다.

저 혼자 오든, 답사객을 모시고 오든, 월곶돈대 앞에 서면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12진보 가운데 제일 상급 부대인 월곶진, 월곶진에서 으뜸인 월곶돈대, 그 위상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연미정을 보호하는 담장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보아야 보입니다. 월곶돈대 출입문을 보세요. 이쁜 홍예문입니다. 홍예문은 한자로 虹霓門이라고 씁니다. ‘虹’도 ‘霓’도 무지개라는 뜻입니다. 다른 돈대들은 담박한 사각형 문인데 월곶돈대는 정성을 더 들여서 무지개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현존하는 돈대 가운데 홍예문이 설치된 곳은 여기와 화도면 미루지돈대(미곶돈대), 양사면 구등곶돈대입니다. 미루지돈대는 가는 길이 꽤 불편하고 구등곶돈대는 북쪽 군사지역 안에 있어서 출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월곶돈대뿐입니다.

자, 드디어 연미정입니다. 그 모양이야 오랜 세월 여러 번 바뀌었지만, 어쨌든 저 멀리 고려시대부터 여기 있던 정자입니다. 《강도지》와 《강화부지》에 대몽항쟁기인 고려 고종 때 연미정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에는 인조 임금이 연미정에 온 적이 있습니다. 정묘호란(1627) 때 강화로 피란했던 인조가 어느 날 연미정에 왔다가 북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연미정 느티나무



연미정 가는 길 철책

연미정에서 동쪽 해변 초소가 선 방향을 보면 길쭉한 섬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유도입니다. 흔히 뱀섬이라고 부르지요. 거기쯤이 임진강과 뚝 섞여 내려온 한강의 끝입니다. 이제 바다가 되어 한줄기는 서쪽 교동 방향으로 흐르고 한줄기는 남쪽 염하로 갑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물줄기가 제비[燕] 꼬리[尾] 같다고 해서 연미정(燕尾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 감고 귀 기울여봅니다. 들립니다. 적막의 소리, 고요의 소리. 남북 분단이 만들어 낸 소리입니다. 저 아래 바닷가 왈작한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경상·전라에서 올라오는 조운선에 각종 크고 작은 상선들까지 배들로 가득했습니다. 연미정 포구에 닻을 내리고 물때를 기다렸다가 한강 타고 올라갔습니다. 뱃사람들 상대하는 이런저런 상점과 주막들도 덩달아 흥이 넘쳤겠지요. 그때 활력이 흐르던, 생동하는 포구였습니다.



미루지돈대 홍예문

아쉬운 게 또 있습니다. 수백 년 연미정과 함께하던 두 그루 느티나무, 그중 하나가 2019년에 닥친 태풍 링링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달려가 보니 참 묘하게도 아무에게 피해 주지 않는 딱 한 자리로 누웠던군요. 나무가 약간 왼쪽으로 쓰러졌다면 돈대 여장이 무너지고 오른쪽으로 쓰러졌으면 연미정 건물이 붕괴됐을 겁니다. 수백 년을 가족처럼 살아온 돈대와 연미정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4년 지난 지금, 여전히 쓸쓸한 모습의 연미정입니다. 쓰러진 나무는 어디로 갔을까. 조선시대 유명했던 ‘강화 반닫이’, 그 반닫이 두 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하점면 강화역사박물관에 있고 또 하나는 강화읍 소창체험관에 있습니다.

강화초등학교 몇 학년 때였던가, 연미정에 소풍 갔습니다. 그리곤 잊었습니다. 기억했다고 해도 또 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후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오래도록 묶여 있어서 출입이 불가능했으니까요. 2008년에야 통제가 풀려서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연미정에서 별을 보고 싶었습니다. 달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갔더니, 군인들이 막았습니다. 야간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네들도 고생하는데.’ 실랑이하지 않고, 군소리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한번은 보고 싶네요.

멀리서 벗이 찾아와 역사 유적 한 곳만 가자고 한다면, 저는 연미정으로 올 겁니다. 접근의 편리성, 정자와 어우러진 주변 풍광의 아름다움, 눈앞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북한 땅, 두드러진 역사적 가치. 이런 면에서 연미정은 참으로 고마운 답사지입니다.

이제 연미정과 월곶돈대에 안녕을 고합니다. 자동차 시동을 겁니다. 출발! 바다 쪽으로 눈을 주니 철책이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옵니다. ‘저 새 이름이 뭐지?’ 새들이 철책을 넘어 날아갑니다. 눈치도 안 봅니다. 내 차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1

기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김학준

전)서울신문 기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다.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들어봤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금시초문이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말이 지니는 사회적 함의는 중요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 ‘노블레스’는 귀족, ‘오블리주’는 의무를 뜻한다. 즉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지닌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와 권력은 의무를 수반한다’는 의미로, 특혜받은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초는 이렇다. 1336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를 상대로 백년전쟁을 일으켰다. 당시 영국의 프랑스 침공은 무모한 도발처럼 보였다. 영국 인구는 400만명, 프랑스 인구는 3200만명이었고 생활수준도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프랑스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영국군의 신무기인 장궁 때문이다. 장궁은 사정거리가 길고 갑옷도 뚫을 정도로 위력이 강했다. 1346년 프랑스 관문도시 칼레는 10개월간 결사항전을 했지만 점령당했다. 이후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칼레 시민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며 시민대표 6인만 처형하고 나머지 시민들은 모두 살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이때 처음 시민대표로 나선 사람은 칼레에서 가장 부자인 생 피에르였다. 그의 뒤를 이어 칼레 시장인 장 데르와 귀족, 성직자 등 5명이 추가로 지원했다. 처형식 날 아침 그들은 맨발로 교수형에 쓸 밧줄을 목에 메고 광장으로 나왔다.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온다. 임신 중인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사람을 죽이면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왕을 설득해 처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칼레 시민대표들의 희생정신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시초가 됐다.

하지만 2000년 전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존재했다. 로마의 귀족들은 재산에 비례해 세금을 납부했고, 병역 의무 또한 앞장섰다. 로마시대에 귀족이 전쟁이 직접 참여하는 전통은 확고했다.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집정관 25명 중 13명이 전사했다. 로마 건국 이후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로 줄어든 것은 계속되는 전투에서 귀족들이 많이 전사했기 때문이다. ‘귀족 대우를 받고 싶으면 귀족답게 행동하라’는 것은 당시의 불문율이었다. 이런 모습을 본 시민들은 기꺼이 병역과 납세 의무를 감당했다. 이것이 원동력이 돼 로마는 천년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대 들어서도 계속된다. 1·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고위층 자제들이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전사자가 2000여명에 달했다. 희생과 숭수범이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여겨지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6·25전쟁 당시에는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기에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 장군의 아들과 8군사령관 조지 워커 장군의 아들,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의 아들이 포함돼 있었다.

우리에게도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경주에서 12대에 걸쳐 300년간 이어진 최 부잣집 이야기다.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사망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최씨 가문 며느리들은 시집 와서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진사 이상 벼슬은 하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최 부잣집의 원칙이다.

김용환은 을미사변 당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김홍락의 손자다. 김용환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건달 행세를 하며 재산을 도박으로 날린 척한다. 그 후 천석 재산도 모자라 외동딸의 신행 때 장롱 사오라고 시가에서 맡긴 돈까지 독립군 자금으로 빼들린다. 딸은 결국 친정 할머니가 쓰던 헌 장롱을 가지고 시집갔다. 광복 이후 임종할 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독립군 동지 하중환이 “이제는 사실을 밝혀도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나 김용환은 “선비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거론할 필요 없다”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김씨 가문에서만 독립운동 훈장을 받은 사람이 11명에 달한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가. 송복 교수가 지적한대로 상층부 대부분은 ‘천민 상층’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위층의 자녀 중 병역 면제자가 일반인의 5배라는 보도가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일상처럼 흘러나온다. 그것도 현재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계, 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관련돼 있다.

미국에서는 갑부가 거액을 기부하는 일이 흔하다. 억만장자인 찰스 척피니는 전재산 80억달러(9조4000억원)를 기부했다. 아내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200만달러(24억원)만 챙겨두었을 뿐이다. 그의 행위는 세계적 자선가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와 투자회사 버크셔해서웨이를 이끄는 워런 버핏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빌 게이츠는 “내가 받은 선물이 엄청날수록 사회를 위해 써야 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계층 대립을 완화하고,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고의 수단처럼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부가 종종 이뤄지고 있지만 대개 주체가 중산층이다. 딱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불릴 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오죽하면 경주 최 부자를 소환해야 할 정도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당시의 나눔과 온정도 주로 특권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서 이뤄졌다. 진짜 부자들은 자식들에게 부를 대물림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고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빗대 ‘가진 자들의 기회적 도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복 전 연세대 교수는 저서 ‘특혜와 책임(부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우리나라 상류층은 ‘당신들 뭉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마’라는 생각보다는 ‘당신들의 뭉까지 빼앗아 살겠다’는 탐욕에 젖어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 상류층만큼 천민성이 두드러진 집단은 없다”고 일갈했다. ■

국가암검진 받고 건강도 선물도 챙겨주세요!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선물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암 검진 대상자가 이벤트 기간 내 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지 지참 후 강화군보건소 1층 건강검진실로 방문 시 선착순 500명에게 ‘도마 3종 세트’를 증정한다.

2023년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흡수 연도 출생자로 △위암 40세 이상(2년 주기)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상·하반기 연 2회) △대장암 50세 이상(매년)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폐암 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2년 주기)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입자는 무료 검진이 가능하다. 그 외 대상자는 10%만 부담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은 조기 발견해 치료할 경우 완치율과 생존율이 높아지는 질병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부터 검진 대상자가 암 검진을 받도록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적극 독려해 수검률을 향상시켰다.

군 관계자는 “검진 대상자가 암 검진을 통해 홍보물도 받고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라며, “군민들이 암 검진에 대한 중요도를 인지하고, 강화군의 암 검진 수검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가암검진 받GO! 선물도 받GO!

참여기간 2023. 4. 17.(월) ~ 6. 30.(금)

대상 참여기간 내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강화군민 (2023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참여방법

- ① 올해 암검진 대상자는 검진기관에서 국가암검진을 받는다.
- ② 증빙서류(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지)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강화군보건소 1층 건강검진실을 방문한다.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홍보물품을 수령한다.

홍보물품 도마 3종 세트 (선착순 500명)

강화군 국가암검진 대상 및 기관 안내

기관명	연락처	암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강원병원	930-9100	○	○	○	○	○	○	
네제스종합병원	290-0011	○	○	○	○	○	○	
연성병원	932-4455	○	○	○	○	○	○	
남강내과병원	934-2142	○	○	○	○	○	○	
영성333의원	932-2375	○	○	○	○	○	○	
해디의원	933-0000	-	-	-	-	○	-	
유미심리원	933-0000	-	-	-	-	○	-	

유의사항

- 증빙서류에 검진일자, 성명, 생년월일 기재 필수
- 수검지 중 증빙서류와 신분증 지참 시 대리인 수령도 가능
-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국가암검진 대상자 조회 ☎032-930-4047 또는 1577-1000

강화군보건소

2023년국가암검진

「두근두근 강화 이야기」로 설레는 학년 교육과정 만들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은 25일 강화군 내가면 이주라책방에서 관내 초등학교 교·수·평 통합지원단 15명을 대상으로 학교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지역화 교재를 개발하고 동학년 단위 프로젝트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합일초등학교 김윤영 교사의 ‘두근두근 강화 이야기 제작 및 운영 사례’ 발표와 2023학년도 강화 초등 교·수·평 통합지원단의 학교 밀착형 현장 지원방안을 협의하였다.

「강화 아이들이 만든 두근두근 강화 이야기」는 학생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각 학년 수준에 맞추어 수필과 시, 역할극, 이야기 등으로 꾸미며 그림으로 엮은 이야기책이다. 합일초등학교는 향후 2022개정 교육과정이 본격화되면 학생자율과정과 결합하여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교·수·평 통합지원단은 저경력교사 수업 컨설팅 매칭, 찾아가는 학교 밀착형 현장 연수 활동을 공동 협의하였다.

강화교육지원청 김성환 교육장은 “두근두근 강화이야기에는 강화 합일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진 배움과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담겨있다. 이와 같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도록 추후 통합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화 아이들이 만든 두근두근 강화 이야기

이음교육과정

청(소)년 치료비지원 사업



1 지원 대상

-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15~34세 청(소)년
-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중인 자로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에 동의한 사람

2 신청 장소

-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강화군 보건소 1층 뒷쪽)

3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1인 최대 100만원(외래치료비 50만원, 입원비 50만원)
- 지원기준
 - 문맹형 및 망상성 장애(F20~29), 조병 케미스트(F30), 양극성정동장애(F31) 등 조현병 범주장애
 - 우울장애(F32~34), 불안장애(F41) 등 정신증을 동반한 기분장애, 불안장애, 자살행동장애
 - 그 외 F코드로 진단 받은 자(치매, 지적장애 제외)
- 지원기간
 - 위의 진단코드로 진단받은지 5년 이내

4 신청 서류

- 치료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최초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중 1개)
- 강화군 거주지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초본, 등본 중 1개)
- 통장사본

※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032-932-4093)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32) 932-4093

어르신 안전보행수칙

1 빨간불에는 길을 건너지 않는다.
(무단횡단 금지)



2 길을 건널 때는 좌·우 확인, 뛰어가지 않는다.



3 밤에는 밝은색 옷을 착용한다.



4 골목길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오토바이)를 주의한다.



5 골목길에서는 자동차를 마주보고 걷는다.



6 육교가 조금 멀리 있어도 육교를 이용한다.



7 안전표지판을 숙지하고 항상 지킨다.



인천강화경찰서 인천강화경찰서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책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